

신앙의 위기 (THE CRISIS OF FAITH)

—루돌프 불트만—
(Rudolf Bultmann)

1. 그러면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는 초월적인 실재는 무엇인가? 기독교적 의미에서 하느님이란 무엇인가?
2.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하느님이란 하느님 개념이 진지하게 취급되고 있는 모든 신앙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면 하느님 개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3. 모든 인간 존재는 그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있으며 또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 존재는 자기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유한성을 알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바로 이 유한성에 의해 이리저리 쫓기우고 있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그 자신이 자신의 창조주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인도 아닌 것이다.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자신의 유한함과 불안전함을 상기시켜 주는 염려에 의해 이리저리 쫓기우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내게 귀 기우리지 않는다 해도
그들 마음 속에는 꼭 메아리 친다네;
그대들 눈 앞에서 변해진 현상으로
무서운 권능을 나는 행하리
길 위에서 혹은 바다 위에서
끊임 없이 애태우며 그대들이 따를 때;
끊임 없이 찾으나 구하지는 못한채,
아첨이 없으면 저주를 퍼부우며……
한때 내가 내것으로 삼았던 이들(사람)
세상이 또한 부인하며……

행운과 실패가 별데스럽게 보여지고
그는 배 부른채 굶주리고
기쁨도 고통도 다른 날로 공평히 연기되어 지며
그가 내일을 위해 남긴 모든 것들은
——성취되지 않네

4. 우선 첫째로 그 염려란 내일을 위한 염려이다.

인간은 식량의 공급이나 조alan, 또는 생계 수단을 위한 준비 등에 마음을 써야 한다. 그 러면서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생계 수단만으로 삶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풍부한 농작물로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시며 살 식량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그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냐?” 이때 우리 모두는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자임을 보고 있는 것이다.

5. 신비한 힘—인간의 한계를 정하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 인간의 주인이 되는 그 힘—이 인간의 미래를 통지하시는 힘이 곧 하느님이다.

6. 또한 아무리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과 내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염려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지나쳐 버리고 만다. 우리의 삶은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라고 이리저리 쫓기고 있으며 때로는 깊은 밤중에도 자지 않고 단지 온갖 환락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한 막연한 동경으로 허덕이는 것이다.

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어떠한 최고의 순간에서도 인간에게는 쾌락의 영원함이나 영원한 쾌락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인간의 삶에서 “제발 그대로 머물러다오, 너무나 좋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과연 있는 것일까?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일시적 순간에 대해서나 영원에 대해서도

지배할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곧 하느님이시다.

8. 또한 인간의 삶은 사랑에 대한 욕구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칼 스피틀러가 쓴 책 “올림피아의 봄”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쫓겨서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헤라에게 아폴로가 말한 바 :

“아난케의 잔인한 영지에는
골짜기에도 산에도 위안은 남아 있지 않다네
두 눈망울의 위안 밖에는——
우정으로 축복 받는 쌍둥이 별들과
감사하는 입술이 토로하는 사랑의 말들 밖에는……”

가 사실 진리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은 쫓기고 있는 것이다.

9. 어떤 삶은 우정과 사랑에 굽주리고 어떤 삶은 그것에 부묘하다. 그러나 부묘한 삶이라 할지라도 누가 말한 것처럼;

“어느 누가 자기 소원대로
땅위에서 영원히 자기 친구에게 소속될 수 있을가?
진진밤 나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으나,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궁극적인 고독을 알게 된다. 이 궁극적인 고독속으로 인간을 물아 넣는 힘 그 힘이 곧 하느님이다.

10.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 동기가 되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또는 인생은 일하려는 충동과 활동하려는 충동으로 산다고 한다. 사실 그것은 파우스트가 “그대로 있어다오 그거 너무나 좋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도달하려고 마지막으로 추구했던 충동인 것이다. 그런데도 갈망과 죄의식과 염려 뒤에는 인간에게 접근해오고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우리의 형제 죽음이 닥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눈 먼 파우스트가 청강거리는 삽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삽소리는 자기의 일을 하느라고 바빠 서들고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무덤을 파는 소리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 최후의 순간인 숭고한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힘, 그 힘이 곧 하느님이다.

1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실존은 의무의 관념 즉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지배 받고 있다. 그러나 삶이 그러한 “너는 해야 한다”는 식이 될 때 그 삶은 하나의 고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인간을 의무에로 소환시키고 탈선하고 무사하려 한 행위로 부터 일상생활로 다시 돌이키게 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기회를 놓치고 불순한 사상과 졸렬한 행동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단의 권리를 빼았기게 하는 “너는 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들, 인간이 얼마나 의소한 존재이며 얼마나 불완전하고 사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양심의 소리.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인 것이다.
12. 인간을 유한하게 하고 인간의 모든 염려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인간의 모든 동경에 실망을 안겨주고 인간을 고독 속에 내던지고 인간의 모든 지식과 행위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을 의무에로 부르고 인간이 괴로워하도록 죄의식을 일깨워주는 그 분이 하느님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삶으로 몰아 넣고 염려의 짐을 지게하며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심어주고 인간에게 일을 위한 힘과 사상을 주고 인간을 자기 주장과 의무 사이의 끝없는 갈등속에 서게하는 그 분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불가해한 힘이지만 그럼에서도 모든 현세의 주인이며 존재를 초월해 있는분이 면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너를 용납 하신다”
(YOU ARE ACCEPTED)

—폴·틸리히—
(Paul Tillich)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로마서 5:20)

1. 바울의 이 말은 그의 사도적 체험, 그의 종교적 “메시지”的 전체, 그리고 삶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말들을 논하거나 또는 몇 가지 설교의 본문으로 삼는 것 조차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언제나 생각했읍니다. 나는 일찌기 이 말들을 써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지난 수 개월간에 무엇인가가 나를 재촉하여 이 말씀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였읍니다. 그것은 나의 회상 속에 삶의 전면적인 결정적 사실로서 느껴진 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 증언하려는 열원이었읍니다. 그 사실이란 죄가 더 판영해간다는 것과 은혜도 더욱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2. “죄”(sin)와 “은혜”(Grace)라는 술어보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불가해한 말은 또 없읍니다. 이 술어들은 그것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리어 불가해한 것이 되었읍니다.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 그것들은 의곡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언어가 가지는 순수한 힘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연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쓸모없이 된 도구처럼 팽개쳐 버릴 것인지를 진지하게 문제 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종교적 전통 중의 중요한 용어에 있어서 신비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말들을 다른 것들로 바꾸어 보려던 노력은 나 자신의 시도까지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표현코자 하는 실재를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모조리 천박하고 무능한 언사가 되어 버렸읍니다. “죄”라든가 “은혜”라든가 하는 말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의미를 제발견할 수 있는 길은 있으며, 동시에 그 길은 우리들을 우리들의 인간 실존의 심연에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심연에서 이 말들이 만들어졌고, 그 심연에서 이 말들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영향력을 얻었으며, 그 심연에서 각 세계와 우리

들 각 개인이 이 말들의 의미를 제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들 가운데서 앞서 말한 성구가 말하는 실재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의 가장 깊은 장소에까지 침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오늘날의 인간은 과연 죄가 의미하는 바를 실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죄란 한갓 부도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을까요. 죄는 결코 복수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편만해 있는 큰 문제는 우리들의 온갖 죄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사람들을 누구 누구는 죄인이요, 누구 누구는 의인이라고 부름으로써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한 파오임을 알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들이 이와 같은 분류를 할 때에 우리들 자신은 완전한 죄인의 부류에 속하지 않으며, 중한 죄들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 혹은 저죄를 억제하는데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만한 겸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이 성서 내외의 위대한 종교적 전통이 죄에 관해서 말할 때 의미하는 것과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4.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대용어가 아니라 “죄”를 설명하는 적절한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seperation)란 누구나 다 가지는 경험의 일면입니다. “죄”라는 말은 “산산조각난다”(asunder)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는 말일 것입니다. 하여간에 죄는 분리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리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분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리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분리 셋째로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인간 전체의 분리입니다. 모든 존재의 상태는 이 세 가지 분리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주적 사실이요, 모든 삶의 속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 인간의 속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분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의 분리의 자멸적인 결과로 인하여 다른 온갖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왜 우리들이 괴로워 하느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들이 참으로 속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그것과 결합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의 속명이 결코 돌발적인 번갯불과 같이 단순

한 자연발생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 인격이 관계를 가지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과 그것은 또한 숙명적인 것으로서 죄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숙명이며 동시에 죄파인 이 분리가 죄라는 말의 의미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전실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리는 모태 안에서 또한 그 이전에 그리고 모든 선행하는 세대에 있어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식적 생활의 특수한 행위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덤을 넘어서 모든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실존 것입니다. 실존은 분리입니다. 죄는 그것이 하나의 행위이기에 앞서 이미 하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5. 은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은혜가 서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생명의 통일—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지식도 파악할 수 없읍니다. 은혜는 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서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란 임금이시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몇 번이거나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은혜의 관념을 배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치한 파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란 영혼의 암흑 속에서 작용하는 마술적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권능이며 멀지 않아 사라지고 말 무익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란 삶의 잔인성과 파괴의 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가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들의 삶은 계속한다”라고 말하거나 “삶의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거나 거기에는 이렇다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이런것들 이상 다른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소멸되어야 할 것이며 내버려 두어도 자연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는 인간이 자연과 사회로부터 받은 선물이요 또한 이 선물의 도움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물 이상의 것입니다. 은혜에 있어서는 무엇인가가 극복됩니다. 은혜는 분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삶과 삶의 재결합이며 자기가 자기 자신과 더불어 화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배척당한 것도 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숙명

을 의의에 가득찬 소명으로 변화시키며, 죄과를 확신파 용기로 변화하게 합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무엇인가 승리를 연상케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죄가 불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더 한층 더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6.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기울여서 분리와 재결합 죄와 은혜, 이웃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우리들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 우리들과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근거와의 관계 속에 있는 투쟁을 살펴 봅시다. 만일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호응하여 준다면 죄와 분리. 은혜와 재결합이라는 말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이 순간 우리들의 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은혜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사회적 행사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때때로 고독을 느끼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타인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사람들의 잡담과 이야기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들은 고독 가운데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삶이 저 삶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각자는 모두 자기 자신의 겹데기 속으로 숨 "어 버리기 때문에 남의 숨은 마음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도 없으며 또 다른 사람도 우리들의 존재의 복면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최대의 사랑일찌라도 자신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가졌던 이러한 환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철저하게 자포자기를 할 때 자신을 헐뜯는다면 그 사람은 무형무능한 존재, 혹은 자아가 없는 사람이 되는 단순한 멸시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의 조상들의 시대보다도 더 잘 우리들의 혼의 밑 바닥에 깔려있는 호진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존재 속에 가득 차 있는 공격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의 이상과 존엄성의 예언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솔직하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의 불행 가운데는 무엇인가 우리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만한 위선자가 이 가

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도취의 만족을 위하여,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또는 순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아주 세련된 방법을 쓰기는 하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서슴없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삶과 삶의 분리, 그리고 “죄가 더한”이라는 말씀의 의의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8. 오늘날 삶과 삶의 분리에 대한 가장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회적 집단 상호간의 태도에서와 그리고 모든 국가 상호간의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상의 거리라는 장벽은 기술적 진보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의 소외의 장벽은 딛을 수 없으리만큼 강화되어 있습니다. 득일 나치의 광포성이나 미국 남부의 대중이 행한 사형(死刑)의 광포성은 우리들의 관심을 우리들 자신과 바깥에 있는 것에게로 들이키게 하는 단단한 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아침 혹은 이 저녁에 유럽의 어느 구석에서 3세 이하의 많은 어린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아세아의 어느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도 없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읽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는가를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과 삶의 절연성은 우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체 하고 살 수 있다는 괴이한 사실 속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시대 감각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도 들어 맞는 것입니다. 인류와 자연, 그 어느 것을 말할 것 없이 삶이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는 무릇 삶을 가진 모든 것에게 편안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하여 갑니다.
9.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타인으로부터만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코 어느 책의 제목만이 아니라 예로부터의 통찰의 재발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내부에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삶은 공격, 증오 그리고 절망에 의해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자기애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자기애의 정반대의 것입니다. 끊임 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해하고 우리들이 영원히 사랑 받을 수 있는 그 사랑 속에 자기를 투입시키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이기심과 자기 증

오와의 혼합물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경멸을 극복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남에게 대한 경멸도 극복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인간적 분리의 심각성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향한 위대하고 자비스러운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 각자에게는 자기 파괴의 본능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기 보존 본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강한 것입니다. 남을 학대하고 파멸시키려는 경향 속에는 저 자신을 학대하고 파멸시키려는 경향이 공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에게로 향한 잔인성은 또한 자신에 대한 잔인성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의식적 생활과 의식적 인격에 있는 분열 보다도 더 뚜렷한 것은 없읍니다. 현대 심리학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라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의 유명한 말로써 표현하고 있읍니다. “내가 원하는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모든 심층 심리학의 표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을 하였읍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이다” 이 사도는 자신의 의식적인 의지와 참의지와의 사이에,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반항하는 이상한 그 무엇파의 사이에 있는 분열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외상태를 죄라고 불렀읍니다. 그는 또 그것을 내 자체 속의 다른 법, 하나의 저항하기 어려운 강요라고 불렀읍니다. 우리들이 완전한 의식 속에서 행동하는 줄로 안 뒤에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놀랍게도 이것과 전반대되는 힘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와 나 자신의 분리의 경험이며, 어감이 좋건 말건 우리들은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0. 이와 같이 우리들의 전 삶의 상태란 이웃으로부터 혹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들의 삶의 기원 및 목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자기 실존의 신비와 심연과 위대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읍니다. 우리들은 심연으로부터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귀는 닫혀 있읍니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것, 전체적인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반역하고 그 긴급성으로부터 도망하려 하며 그 약속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11. 그러나 우리들은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존재의 근원이라면 마치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과 다른 모든 삶에 예속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히 그것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그 권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실은 죄의 궁극적인 심연속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들어 갑니다. 즉 떨어져 있으면서도 얹매여 있는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소속되며, 멀망당하면서도 보존되는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 말입니다. 절망이란 도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이라는 병의 두려움은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숨어서 하는 자살에 의해서도 이 절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에게 영원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리의 심연은 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허무감, 공허감, 회의, 그리고 냉소주의 —이것들은 모두가 다 절망의 표현이며 우리들의 삶의 근본과 의미로부터 우리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전 시대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는 가장 심오한 의미에 있어서 죄 즉 절망이라는 형태로써, 우리들 가운데서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12. 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도다”라고 말한 바울은 같은 서신에서 사회와 개인 영혼 속에 내재해 있는 자기 파괴와 분리의 상상할 수 없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② 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감상적인 취미가 모든 비극의 행복한 종말을 요구하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③ 그는 이 말들이 그의 삶의 가장 압도적인 경험, 결정적인 경험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그는 남으로부터 또는 저 자신 및 하느님으로부터의 가장 큰 분리의 순간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 안에서 배척을 당하면서도 용납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용납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있었고 남파도 화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⑥ 은혜가 그를 엄습하고 그를 압도하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소속하였으면서도 또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그것과 재결합되었습니다. ⑦ 그러면 은혜에 엄습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⑧ 그것은 우리들이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예수가 구주라는 것 또는 성서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⑨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을 믿는 것은 모름지기 은혜의 의미와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⑩ 더욱기 은혜는 어느 특정한 결점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이나,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도덕적 자기 수양에 친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⑪ 도덕적 친보가 은혜의 열매일수는 있읍니다. 그럴찌라도 그것은 은혜 자체는 아니며 오히려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⑫ 왜냐하면 은혜를 제외한 그리스도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든가 은혜의 도움없이도 우리들의 인격 안에서 악의 조직과 싸울 수 있다는 주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⑬ 그와 같은 은혜를 결여한 하느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을 교만으로 이끌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망으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⑭ 은혜를 제외한채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성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들이 은혜 없이 그것들을 받아 들인다면 이는 분리의 상태하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결과는 오히려 분리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⑮ 우리들이 저 은혜가 엄습하여 와서 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⑯ 그 일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⑰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자기 만족의 상태에 빠져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억지로 은혜가 일어나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⑱ 은혜는 우리가 극도의 고뇌와 불안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입니다. ⑲ 우리들이 무의미와 공허한 생활의 암흑의 골짜기를 거닐 때 은혜는 우리들을 엄습합니다. ⑳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 또는 우리들이 소외시키는 삶을 침해함으로써 우리들의 분리가 평소보다도 더 깊어진 것을 느낄 때, 그때 갑자기 은혜가 우리들을 엄습합니다. ㉑ 자기 존재에 대한 염증, 물인정, 유약, 적개심, 방향과 평정의 결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때 은혜는 우리들을 엄습합니다. ㉒ 기다리고 기다리던 삶의 완전이 실현되지 않을 때, 지난 수십년 동안 그랬던거와 마찬자리 강박관념이 우리들의 내면을 지배할 때 그리고 절망이 모든 기쁨과 용기를 꺾어버릴 때 은혜가 우리들을 엄습합니다.

㉓ 그러한 어떤 순간에 갑자기 광명의 햇살이 우리들의 암흑에 돌입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의 외침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듯 합니다. “너를 용납 하신다.” ㉔ 너를 용납 하신다는 것은 너보다 위대한 자가 너를 용납 하신다는 말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㉕ 아직은 그의 이름을 묻지 말아라. 그러나 아마도 멀지 않아 알게 될 것이다. ㉖ 아직은 아무것도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나 멀지 않아서 더욱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다. ㉗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또한 아무것도 의도하지 말아라. ㉘ 다만 “너를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용납하여라”고 ㉙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㉚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은 뒤에도 우리들은 개선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㉛ 그러나 모든 것은 달라졌읍니다. ㉜ 그 순간에 은혜는 죄를 극복하고 화해는 소외의 심연에 다리를 놓습니다. ㉝ 그리고 이 경험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㉞ 종교적 전제도 도덕적 지성적 전제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받아 들이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13. 이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들은 남과 관계를 가질 때, 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은혜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솔직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은혜, 삶의 기적적 재결합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서로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의 문자적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비록 그것이 가혹한 노여움의 말일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서 일지라도 분리의 장벽을 뚫으려는 소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삶이 비록 우리를 향하여 적의를 가지고 해를 끼치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현실을 믿는 이상 우리들은 그의 삶도 내 삶이 그렇듯이 동일한 근원에게 속해 있고 그것에게 용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성간의 비극적 분리, 세대와 세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있는 비극적 분리와 나아가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불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때로는 이러한 모든 분리에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원래 속해 있던 것에게 다시 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14. 또한 우리들은 은혜의 빛 아래에서 나 자신과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은혜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듯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나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 순간을 더욱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간에 있어서만 우리들은 자신의 선함이나 자기 만족에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삶이 가진 영원한 의미에 대한 확신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까지도 이를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에 대한 용납을 자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누구에 대해서도 저 자신을 용납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받으며 평화가 우리들의 속에 들어와 우리들을 온전케 하고 자기 혐오와 자기 조소가 사라지고 우리들의 자아가 그 자신과 결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들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 죄와 은혜는 정말 불가해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가해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탐구적인 눈과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속을 들여다 볼 때에 언제나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은혜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들 안에 그리고 만유의 생명 속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자 유
(FREEDOM)

—디이트리히 본 هو퍼—
(Dieterich Bonhoeffer)

1.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한 책임적 행동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결론 지어야 하겠다.
2. 책임과 자유란 서로 상응하는 개념이다. 책임은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아니지만, 자유를 전제로 하며 자유는 책임 안에서만 성립한다. 책임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인간의 자유이다.
3. ① 책임적 인간은 인간이나 환경이나 원칙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나, 주어진 인간적, 일반적, 원칙적 조건들을 잘 고려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유 안에서 행동한다. ② 그의 행동과 그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그를 위해 책임져 줄 수 없으며, 아무도 그를 그의 책임에서 면제시켜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 자유의 증거가 된다. ③ 그 자신이 관찰하고, 판단하고, 달아보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않된다. ④ 그 자신이 행동의 동기, 전망, 그리고 가치와 의미를 읊미해야 한다. ⑤ 그러나 의도하는 행동의 동기의 순수성, 적절한 환경이나 가치나 그 중요한 의미도 그의 행위를 지배하는 율법, 즉 그가 거기로 돌아오고 권위 있는 자로서 거기에 호소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사죄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그러한 율법이 될 수는 없다. ⑥ 그때에 그는 진정으로 자유한 것은 아닐 것이다. ⑦ 책임적인 자의 행동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는 하느님과 이웃과의 밀접한 관계에서만 성립된다. ⑧ 이러한 행동은 동시에 전혀 상대적인 영역 안에서와 역사적인 상황이 선악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빛에서, 그리고 모든 주어진 현상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전망 가운데서 성립한다. ⑨ 단지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 사이에서만 결단해야 할 뿐 아니라 정의와 정의, 부정과 부정 사이에서의 결단이 요구된다. ⑩ 아이쉬로스가 말하듯이 “정의와 정의가 싸우는” 것이다. ⑪ 책임적인 행동은 바로 이 점에서 자유로운 모험이며 어떠한 율법에 의해서도 정당화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유효한 자기의인(自己義認)의 요구를 포기하고, 따라서 선악에 대한 궁극적으로 유효한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포기함으로써 행해지는 행동이다. ⑫ 책임적인 것으로서의 선은 궁극적인 선을 알지 못한채 행해지고, 필연적이 되면서도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 자유스런 행위를,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행위를 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느님에게 맡기면서 행해지는 행동이다.
4. 여기에서 우리에게 역사 일반의 깊은 비밀이 드러난다. 바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의

자유에서 행동하는 자는 그의 행동이 하느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본다. 자유로운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행위로서, 결단은 하느님의 인도로서, 모험은 하느님의 필연성으로서 인식된다. 자기 자신의 선에 대한 지식을 자유로이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의 선이 행해진다. 이 궁극적인 관점에서 비로소 역사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선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후에 남겨진 문제와 함께 이것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5. 먼저 아직도 하나의 결정적인 우리의 문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면을 써야 하겠다. 그것은 자유로운 책임과 복종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인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로운 책임에 대해서 말하여 온 것은 모두 실제적으로는 오직 인간이 이 삶 가운데서 이른바 “책임있는 지위”에 놓여졌을 때, 즉 넓은 범위에서 자주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만 적용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품팔이 노동자, 공장 노동자, 젊은 사무원, 일등병, 전습공, 그리고 학생들의 단조로운 나날의 일에 있어서 이 책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자유로운 시골의 농장 주인, 기업가, 정치가, 장군, 책임자, 교사, 재판관 등의 경우에는 사정이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서도 기술적으로 처리될 일이나, 정해진 의무에 따르는 일이 얼마나 많고, 반면에 진정으로 자유로운 결단의 여지는 얼마나 적은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소수의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의 극소의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다른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책임 대신 복종과 의무가 말해져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위대한 자, 강한자와 지배자를 위한 윤리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자, 약한자와 피지배자를 위한 윤리가 존재한다. 저편에서는 책임이 이편에서는 복종이 저기서는 자유가 여기서는 종속이 존재한다. 우리의 현대 사회의 질서, 특히 우리 독일의 사회 질서에는 개인의 존재는 분명히 매우 제약되고 규제되며, 따라서 동시에 그와 같은 완전한 보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또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넓은 영역의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고 자기의 책임적인 행동에 따르는 위험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원칙에 의하여 어릴 때부터 양육 받은 인간은 윤리적으로 거세되고 창조적인 도덕적 능력 즉 자유가 그에게서 박탈된다. 이 집에 있어서 우리 현대 사회 질서의 본질적인 발전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오류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책임에 대한 근본 개념을 명백히 망각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정에 따라서 책임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자료는 위대한 정치지도자, 기업가, 장군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매일 매일의 생활에 깊매여서 자기의 자유로운 책임적인 행동을 모험적으로 시도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사회적 질서와 일반적으로 틀에 박힌 생활에 부딪쳐 저지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6. 그런데 단지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요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사실상 책임의 상황을 경험하고 배울 수 없는 고립된 삶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삶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 즉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상황이 경험된다. 자유로운 책임이 인간의 직업적이고 공적인 생활로부터 다소간 배제되는 때에도 그는 항상 타인과의 책임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그의 직업 동료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순수한 책임의 완수는 다시 한번 직업적이고 공적인 생활 속에 책임의 분야를 확대하는 유일하고 전천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이것은 직업적인 생활에서의 만남도 포함하는 것인데, 진정한 책임성이 성립되며 거기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책임적인 관계를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부 상호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견습생, 교사와 학생, 재판관과 피고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은 사실인 것이다.
7. 그러나 우리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책임이란 복종 관계와 병행해서 성립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견습생은 그의 스승에 대하여 복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의 일과 그 업적에서도, 그의 스승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학생과 선생 그리고 어떤 산업체의 피고용자와 전쟁중에 있는 병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복종과 책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복종이 끝나는데서 비로소 책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안에서 복종이 행해진다. 복종관계와 종속관계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것들은 이미 오늘날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책임을 자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보다 종속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종속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주인과 복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피차 자유로운 책임 가운데 설 수 있으며 서야 한다.
8.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예수는 복종하는 자로서, 그리고 자유한 자로서 하느님 앞에 선다. 복종하는 자로서 그는 그에게 요구하는 율법에 무조건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자유한 자로서 그는 열린 눈과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인식하는데서 하느님의 뜻을 긍정한다. 그는 동시에 이 뜻을 그 자신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한다. 자유없는 복종은 노예요. 복종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복종은 자유를 제한하며, 자유는 복종을 고귀하게 만든다. 복종은 피

조물을 창조주에게 매여 주며, 자유는 피조물을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로 그 앞에 세운다. 복종은 선이란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미 6:8)하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간에게 보여주며, 자유는 스스로 인간이 선 그 자체를 행하도록 한다. 복종은 선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자유는 용감하게 행동하며,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느님에게 맡긴다. 복종은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유는 열린 눈을 가지고 있다. 복종은 묻지 않고 행동하며 자유는 그 의미를 묻는다. 복종은 속박된 손을 가지며 자유는 창조적이다. 복종하는데서 인간은 하느님의 십계명을 따르며 자유에서 인간은 새로운 십계명을 만든다. (루터)

9. 책임 안에서 복종과 자유, 이 양자가 실현된다. 책임은 복종과 자유 사이의 긴장관계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될 때는 이 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책임적인 행동은 제약되어 있으나 창조적이다. 복종을 자유에서 독립시키는 것은 칸트적인 의무의 윤리에 이르게 되며, 자유가 복종에서 독립하게 되면 무책임한 천재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 의무의 인간이나 천재는 다같이 자기 자신 속에 그들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속박과 자유 사이에서 있는 책임의 인간은 속박된 자로서 자유 가운데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 그는 그의 정당성을 그의 속박에서도 자유에서도 찾지 않고 오직 그를 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세우고 그에게서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분 안에서만 찾는다. 책임적인 사람은 그 자신과 그의 행위를 하느님께 맡긴다.
10. 우리는 책임적 생활의 구조를 대리 행위, 협실 적응성, 죄책을 받아드리는 것, 그리고 자유의 개념 가운데서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위한 요구에 따라 책임적인 생활이 실현될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묻게 된다. 책임성이 무제한한 활동의 영역에 나를 세우는가? 혹은 나를 나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더불어 주어진 제한 가운데 나를 엄격히 속박하는 것일까? 책임적이 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또 나의 책임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는 나 자신의 적은 영역이 질서 가운데 있는한,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에 대하여 무관심한 방관자로서 방관만 할 수 있을까? 나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부정, 모든 비참한 것에 대하여 무력한 열심으로 기진 맥진해 있을 것인가? 혹은 나는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일에 정진함으로 자기 만족의 안일 가운데서 악한 세계가 제멋대로 내 달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나의 책임의 장소는 어디며 나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일까?

사회의 선구자로써의 교회
(THE CHURCH AS SOCIAL PIONEER)

—리차드 니버—
(H. Richard Niebuhr)

1. ①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선구자(Pioneer)로써의 책임이라 하겠다. ② 교회란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God-in-Christ)과 하느님 안의 그리스도(Christ-in-God)에게 제일 먼저 응답하는 인간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③ 그것은 모든 사회와 인류 전체 속에서 민감하게 응답하는 부분이다. ④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분의 심판을 지켜보며, 부활의 소망(Vision)을 가지고 사는 무리이다. ⑤ 교회는 하느님파의 관계에서 전체 사회를 대신하여(on behalf of) 그 사회 속에서 하느님께 응답하는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마치 과학이 경험의 어떤 양식(본보기 : Pattern)이나 합리성에 반응을 보이는 일에 선구자인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술자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일에 선구자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⑥ 사회적 책임의 이같은 종류의 한 예로서 히브리 백성과 남은 자(remnant : 소수의 예언자)의 경우에서 그 실례를 볼 수 있겠다. ⑦ 결국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자각했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백성을 하느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하느님에 의하여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다. ⑧ 그것은 우상숭배의 무가치성을 깨닫게 하며 형제 사랑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데 선구자적 임무를 다하게 했던 인류의 한 부분이였다. ⑨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에게 드디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 ⑩ 이런 대표적인 책임개념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명되어졌다. ⑪ 신학에서 자주 지적되어 왔듯이 신약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게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 ⑫ 그 분의 복종은 선구자적이며, 대표자적인 그런 종류의 복종이었다. 그 분은 인류를 대신한 복종이었고 인간이 행할 바를 보여 주셨으며,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느님의 응답을 끌어다 안겨 주었다. ⑬ 그는 인류를 대표하고 인류를 위한 선구자가 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신뢰하였다.
2. 선구자적이고 대표자적이란 의미는 여러 세기를 걸쳐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강조함으로 다소 모호해졌다. 책임이란 전통적인 신학용어로 표현하면 현대인에게는 생소하고 무의미하게 들린다. 그러나 삶 속에 깊이 관여된 생활 방식이나 자기와 사회를 함께 연결시키는 태도나 국가 안에 작은 무리들이 전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허부리적이고 중세기적인 개념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3. 이 대표적인 의미의 교회란 하느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성직자로서 하느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느님의 뜻의 새로운 국면을 깨닫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인간 사회의 영역이며 각기의 구체적인 사회의 요소가 된다. 인간 사회는 어떤 분야에서도 전체가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들은 불신앙에 근거해 있고 천지의 주재가 되시는 주님께 대한 불신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사회 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복종하고 그 신뢰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
4. 윤리적인 면에서 교회는 사회의 여러 죄들을 먼저 참회하며 전체를 위하여 참회한다. 노에 제도가 하느님의 뜻에 어그러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 노에제도에 등을 돌리고는 교회 안에서 그 제도를 폐기시킨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구자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전 사회의 죄를 참회하고 전 사회적인 참회가 일어나도록 이끄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재산 제도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생길 때 교회는 이러한 제도의 용도를 변혁시키고 그들을 개혁하도록 사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는 또한 하느님 앞에서 평등을 실현하고 지배자들의 제도를 개혁하는 일, 그리고 개개인이 서로 상호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어서 교회는 사회의 선구자와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5.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경계적 제국주의의 죄악상이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그 자체 안에서 그러한 죄악상을 거부함은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교회 안에서 인종차별의 선구적인 어떤 조치가 없이 유색인종에 대해 선악간에 사도적인 소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불성실과 불신앙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국가주의의 강력한 배제 없이 국가주의에 대한 예언자적 경고를 한다는 것은 대개 수사학적인 것이 될 뿐이다. 교회가 교회 자체의 사고방식과 조직과 행동에 있어서 인종과 계급 그리고 국가적인 이익으로 분열되지 않고 세계 사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때 교회는 인류의 선구자와 대표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민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상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계명만을 반복하는 것에서 하느님과 이웃에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시범행위이다. 이 책임이 수행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교회의 실재성(Reality)에 대한 어떤 직문도 문제시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하느님께 선구자적이며 대변자적인 응답의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행위는 재현(Reduplicate)되는 것이다.